

목 도	다 같이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301장	다 같이
기 도	가족 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스가랴 1:1-3 **다 같이**

- 1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와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2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 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말 씬 “귀 향”	인 도 자
기 도	인 도 자
찬 송 559장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귀향(스가랴 1:1-3)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복된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1. 예루살렘의 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을 늘 그리워했습니다(시137:1).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고 유대인들은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학1:6). 이에 대하여 스가라는 귀환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돌아가는 장소적 이동으로만 생각한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2. 하나님께로의 귀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슌1:3). 예루살렘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예루살렘 한 복판이라도 불행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최종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품이고 그들이 건축해야 할 최종적인 성전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마음의 성소입니다.

3. 하나님의 귀환

귀환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중요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슌1:3)’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환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채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삶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십니다.

어디에 살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설 가정예배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559장)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은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